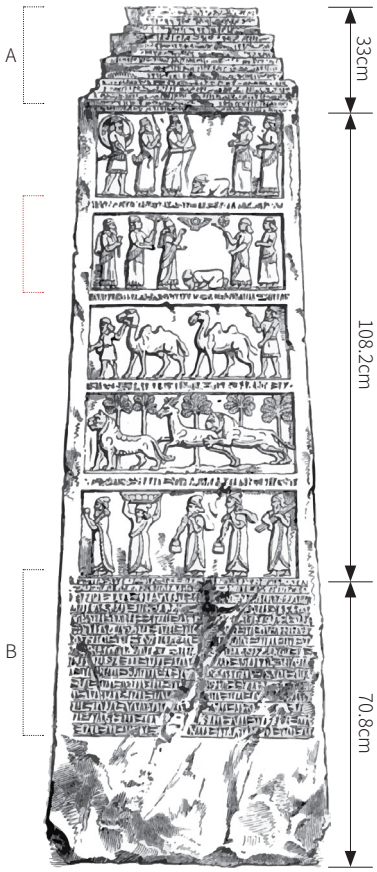
저작권 없음 공지. 이 문서에 대한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글, 그림, 사진 등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마음 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BIBLIA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소식, 그리고 학술적인 소식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미자립 교회나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BIBLIA에 후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후원에 대해서는 www.biblia.co.il 에서 About BIBLIA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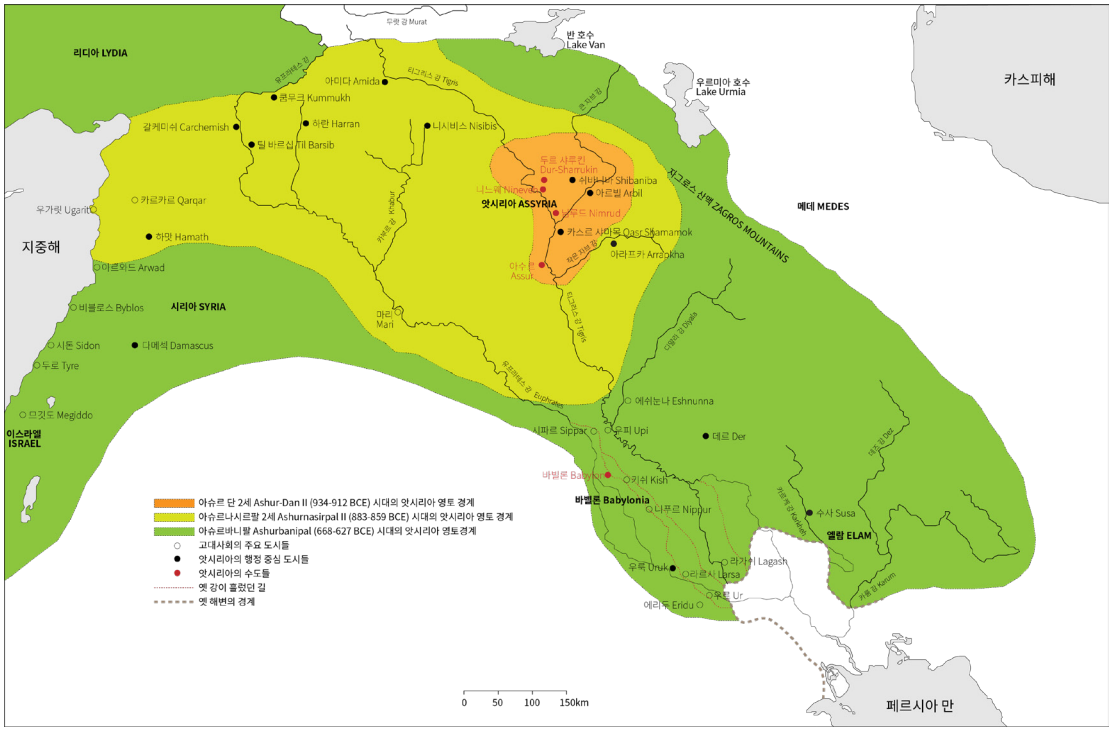
[A] 아수르, 위대한 주, 모든 이들의 위대한 신들: 아누 Anu, 하늘의 영들의 왕, 그리고 땅의 영들, 세계를 다스리는 주; 벨 Bel, 가장 뛰어난 자, 신들이 아버지, 창조자; 헤아 Hea, 깊음의 왕, 운명의 결정자, 왕들 중의 왕, 들이켜 마시는 이; 림몬 Rimmon, 면류관을 쓴 영웅, 운하의 주인; 태양신, 하늘과 땅의 재판관, 모든 것의 조언자; [므로닥] Merodach, 신들의 황태자, 전쟁의 주; 아다르 Adar, 끔찍한 이, 하늘의 영과 땅의 영들의 [...], 강한 신; 네르갈 Nergal, 강력한 이, 전쟁의 왕; 느보 Nebo, 높은 왕권을 가진 이, [...] 신, 하늘의 아버지; 벨티스 Beltis, 벨의 아내, 위대한 신들의 어머니; 이쉬타르 Istar, 하늘과 땅의 지배자, 완벽한 영웅; 위대한 [...] 운명의 결정자, 나의 왕국을 만든 이. [나] 살만에셀, 많은 사람들이 왕, 앗수르의 지배자이자 영웅, 강력한 왕, 해가 뜨는 사면에 사는 모든 이들의 왕, [온 세계를] 진군하는 왕; 전 세계를 [진군하는 왕], 아수르나시르팔 (Assurnasirpal)의 아들, 위대한 영웅, 신들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는 그의 발에 입맞춤하게 하였다.

[B] 내가 다스린지 8년째 되던 해, 간-두니아스 Gan-Dunias의 왕인 므로닥-수마-이딘 Merodach-su-ma-iddin 이 그의 의붓형제인 므로닥-빌라-유사테 Merodach-bila-yu'sate 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요새화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므로닥-수마-이딘을 벌하기 위해서 출정했다. 나는 물이 풍부한 도시 두르낫 Dhurnat 을 점령하였다. 나의 아홉번째 출정은 두번째 가게 되는 아카드 Accad 였다. 나는 가나-나테 Gana-nate 도시를 포위하였다. 므로닥-발리-유사테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였다. 므로닥은 당황하였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했다. 나는 그의 뒤를 뒤쫓았다. 므로닥-빌라-유사테와 그를 따르는 장군들을 활로 살육하였다. [그들의] 위대한 요새들로 진군하였다. 나는 바빌론 Babylon, 보르시파 Borsippa, 쿠타 Cuthah에서 제의를 드렸다. 위대한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나는 칼두 Kaldu 로 내려갔다. 그들의 도시들을 점령했다. 칼두 지역의 왕들로 부터 공물을 받아냈다. 나의 위대한 팔에 바다가 떨었다.
내가 왕위에 오른지 10년째 되던해, 나는 유프라테스 강을 여덟번째로 건넜다. 칼케미쉬 Carchemish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가라 Sangara의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아라메 Arame의 도시들로 진군하였다. Arne의 도시들과 100개의 마을을 점령하였다. 내가 왕위에 오른지 11년째 되던해, 나는 아홉번째로 유프라테스강을 건넜다. 셀 수 없이 많은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하맛 Hamath 사람들의 땅에 있는 히타이트 Hittite 인들의 도시들로 내려갔다. 89개의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다마스커스 Damascus의 림몬-이드리 Rimmon-idri 와 히타이트의 열두명의 왕들과 한 명의 다른 왕의 군대가 무장하였다. 나는 그들을 파괴하였다. 내가 왕위에 오른지 12년째 되던해, 열번째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파가르-쿠부나 Pagar-Khubuna 땅으로 진군하였다. 나는 전리품들을 옮겨왔다. 내가 왕위에 오른지 13년째 되던해, 야에티 Yaeti 지역으로 내려갔다. 나는 전리품들을 얻었다. 내가 왕위에 오른지 14년째 되던해, 나는 군대를 모으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따. 나를 대적하는 열두 명의 왕들이 왔다. 나는 싸웠고 그들을 이겼다. 내가 왕위에 오른지 15년째 되던해, 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지로 갔다. 나는 그 곳에 나의 위대한 형상을 세웠다. 내가 왕위에 오른지 16년째 되던해 자브 Zab 강을 건넜다. 찌므리 Zimri 지역으로 진군하였다. 찌므루 Zimru 땅의 왕인 므로닥-무담믹 Merodach-mudammik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갔다. 그의 보물과 그의 군대, 그리고 그의 신들을 가져왔다. 칸반 Khanban 의 아들인 얀수 Yansu 를 왕으로 세웠다.

검은 오벨리스크 (Black Obelisk)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대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제국들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유다**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이야기들(예를 들자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소개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예가 **카르카르**(The Battle of Qarqar) 전투입니다.

앗시리아(우리말 성경. 앗수르)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규모로 만난 첫번째 전쟁은 **아합** 시대였어요. 기원전 853년에 **살만에셀**(Shalmaneser III: 858-824 BCE)의 군대가 **가나안**과 **아람** 지역의 나라들이 결성한 연합군과 **카르카르**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12나라의 연합군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1] **하맛**(Hamath), [2] **아람 다메섹**(Aram-Damascus), [3] **암몬**(Ammon), [4] **아르와드**(Arwad), [5] **쿠**(Que), [6] **이르카나타**(Irqanata), [7] **쉬아누**(Shianu), [8] **우산나타**(Usannata), [9] **마수라**(Masura), [10] **아랍**(Arab), [11] **이집트**(Egypt-이집트의 참전에 대해서는 논쟁적



앗시리아 제국의 영토 변화. 아슈르나시르팔 2세가 살만에셀 3세의 아버지이다.

이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연합군의 지휘관이 **아람-다메섹**의 **하다드에셀**(Hadadezer)인데요. **아람**이라고 하면,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아합**과 전쟁에서 대패하여서 **아합**과 조약을 맺고 돌아갔던 나라입니다(왕상 20장).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되지 않아서 열두개 나라가 함께하는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찌되었든 **아합**은 2,000대의 병거와 10,000명의 군인들을 참전시켰습니다. 이 전쟁을 기록한 **쿠르크 석비**(Kurkh stela)가 없었다면, 아마 역사에 이 전쟁이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또 성경에 등장하고 서로 다툰 **아람**의 **벤하다드**(우리말 성경. 벤하닷)와 **아합**이 서로 다투었다가, 성경대로 전쟁 후에 서로 조약을 맺고 친선관계를 맺은 후, 몇년 후에는 곧 연합군으로 함께 **앗시리아**와 견주어 싸웠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 버릴 뻔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고학의 발견으로 알려진 **살만에셀**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의 **예후** 역시 여전히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으로 **앗시리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요람**,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서로 마주하고 있던 때, **요람**이 전쟁 중 부상을 입었나 봅니다.

쿠르크 석비 (Kurkh Stele)는 **아슈르나시르팔 2세** (Ashurnasirpal II)과 그의 아들인 **살만에셀 3세** (Shalmaneser III)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석비이다. 1861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타일러** (John George Taylor)가 **터키** 동부 **비스밀** (Bismil)지역의 **쿠르크** (Kurkh) 마을에서 발굴하였다. 이 석비에는 **카르카르** 전투 (The Battle of Qarqar)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성경 밖의 네개의 고고학 유물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B.E. Kelle, "What's in a Name? Neo-Assyrian Designations for the Northern Kingdom and Their Implications for Israelit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JBL* 121[4] (2002): 641-46.

예후의 사절단. 검은 오벨리스크 첫번째 변의 두번째 둘에 새겨진 그림과 글

잠시 전열에서 빠져 나와 **이스르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엘리사**가 제자 중의 하나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예후**를 따르게 되었어요.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인후 북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을 28년간 다스렸습니다 (842-815 BCE).

당시는 **살만에셀**이 아버지인 **아슈르나시르팔** (Ashurnasirpal II)이 그어놓은 국경을 넘어 동서남북 종횡무진 군사를 이끌고 영토를 넓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만나는 것은 예측된 결과였지요. 이 영토 확장 전쟁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아합**과 11개의 동맹 국가들이 연합하여 **앗시리아**의 팽창을 막아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쿠르크 석비**가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력한 위력을 과시한 **앗시리아**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비록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이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된 **예후** 역시 **살만에셀**의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만에셀**은 비록 **예후**가 **아합**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가의 후예로 **예후**를 인정하였고, 그로부터 공물을 받아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확인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물이 **살만에셀**의 **검은 오벨리스크** (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 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검은색 현무암으로 만들어 진 사각형의 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25년에 당시 **앗시리아**의 수도인 **님루드** (Nimrud)에 세워졌는데요. **님루드**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갈라** (Calah)라고 하는 곳으로 **함**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창 10:11). 사각 기둥의 꼭대기 부분은 마치 **지구랏** (Ziggurat)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야드** (Austern Henry Layard)가 1846년에 발굴한 것입니다. 이 **오벨리스크스**의 네 면에는 다섯 줄로 그림과 함께 조공을 바치러온 나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두번째 줄이 **예후**가 보낸 공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살만에셀 3세가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는 모습을 새겨놓은 그림을 보면, **살만에셀**의 뒤로 한 시종이 햇빛 가리개를 받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뒤에 있는 또 다른 시종은 마치 **살만에셀**에게 부채질을 하듯하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후**에게 조공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만에셀**을 보고 있어요. 맨 양쪽의 사람들은 **살만에셀**을 호위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 옆 면에는 두명의 **앗시리아** 관리가 앞에 서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네 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면으로 넘어가면서 파노라마 처럼 보

는 방식이예요. 그렇게 파노라마로 보면, 호위병의 뒤로 세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에셀**에게 바칠 공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옆 면으로 돌면 그 면에는 조공을 바치는 다섯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있는 데요. 손에는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와 막대기, 잔과 왕의 홀과 막대기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면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섯 명이 조공을 메고 이며 오는데요. 어깨에는 큰 그름들과 손에는 손잡이가 있는 그릇, 그리고 머리에는 무언가를 이고 있습니다. **살만에셀**은 오벨리스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았다. 은, 금, 금사발, 금대접, 금 잔, 금 주전자, 주석, 왕의 손에 들린 홀과 막대기"

독립 국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합** 시대 이후로 **앗시리아**의 속국으로 살아야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만에셀**의 **검은 오벨리스크** (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가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조공도 큰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722BCE).

A.H. Layard, *Inscriptions in the Cuneiform Character from Assyrian Monuments* (London: Harrison and Son, 1851), 87-98.

예후? 아벨 벧 마아가 Abel Beth Maacha에서 2017년에 발굴한 두상. 유리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보아 왕의 두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의 높이는 5cm로 제작 시기는 기원전 9세기이다. 그렇다면, 아합 또는 예후의 모습일 수도 있다.